나주시, '2026 나주방문의 해' 기념 김문정 개인전 개최

산포면지사협, '꽃처럼 피어나는 효' 나눔 실천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전경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관계와 비움의 철학을 담은 특별 전시를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유와 치유의 문화 예술 공간을 제공한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기념해 김문정 작가 초대 개인전 '잇고, 비우고, 스미다'를 오는 27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김문정 작가의 작업은 인간과 세계를 각각 독립된 존재가 아닌 서로 연결되고 스며드는 '관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이러한 철학이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시각적 조형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시의 핵심 매개체인 '실'은 관계를 잇는 선과 인연의 흐름을 상징하며 '한지죽'은 스미고 겹쳐지고 굳어지는 과정을 통해 관계의 형상을 구현한다.

마대천과 한지 위에 실과 한지죽이 엉켜 붙고 굳어지는 흔적들은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고 연결돼 살아가는 관계의 의미를 담아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인위적인 색채를 덜어내고 한지 본연의 빛깔과 질감을 살려 '비움'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작품 속 여백은 단순한 비어 있음이 아니라 관람객이 자신의 삶과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사유의 공간으로 표현됐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착수

담양군은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전담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향후 4년간의 복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 담양군만의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으며, 주민 욕구 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오는 9월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고독사·자살 예방 조직 재편과 '이어봄 사업' 등 민·관 협력 복지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해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화순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액 무료 지원 추진

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한다.

검진 대상자는 1946. 1. 1.~1975. 12. 31. 기간 중 짝수년도에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이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폐기능, △골절·손상위험도, △농약중독 등 5영역, 10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기관은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며 검진대상자인 여성농업인은 농업e지 모바일 앱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검진받을 수 있다.

군은 376명을 대상으로 검진비 전액을 지원하며, 모집 인원이 충족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농작업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영농생활과 건강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상은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폐기능, 골절·손상 위험도,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검진은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에서 실시된다.

신청은 농업e지 앱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병원 직접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총 376명을 대상으로 검진비 전액을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김진 기자

장성군 황룡강 참여정원 새단장… 더 아름다워졌다

주민·시민정원사 22명 전정작업, 초화류 식재 등

시민정원사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황룡강 참여정원을 정비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오는 23~25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를 앞두고 군민과 함께 황룡강 참여정원 정비에 나섰다.

참여정원은 장성군이 지난해 '황룡강 정원 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강 건너 힐링허브정원 방면에 조성했으며, 총 20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비 작업에는 전문적인 정원관리 교육을 받은 시민정원사와 군민 등 22명이 동참했다. 잡초 제거, 전정 등을 실시해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초화류 15종 3925본을 식재했다.

정원 정비에 참여한 시민정원사 김모 씨는 "축제기간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것을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났다"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장성군이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를 앞두고 군민과 함께 황룡강 참여정원 정비 활동을 진행하며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축제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추진됐다.

참여정원은 지난해 조성된 공간으로 황룡강 인근 힐링허브정원 주변에 총 20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 관리에는 시민정원사와 지역 주민 등 22명이 참여해 환경 정돈과 식재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잡초를 제거하고 수목을 다듬는 등 전반적인 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초화류 15종 3925본을 새롭게 심어 계절감이 느껴지는 정원으로 재정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축제 기간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김재섭 기자